

# 부진한 4분기 실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



## 1. 전주 주가 추이

단위: pt, 원, 십억원, 배, %

	현재가	Mkt. Cap.	PBR (2019F)	PER (2019F)	ROE (2019F)	1 W	1 M	3M	6M	YTD	Weekly Net Buy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공매도 거래대금 1W	1M
KOSPI	2,041	1,266,786	0.8	8.8	10.0	-1.0	-3.2	-12.9	-11.8	-17.3	-81	508	-13	1,174	7,540
KOSDAQ	676	124,251	2.1	14.8	15.6	0.3	-3.5	-17.8	-16.6	-15.4	249	-57	46	346	1,981
보험	16,303	19,308	0.5	9.9	5.7	-2.7	-3.9	-10.7	-8.3	-22.9	-13	-3	-10	23	109
증권	1,676	17,910	0.7	8.6	8.5	-3.4	-3.1	-12.5	-12.7	-15.6	-11	4	-12	17	99
삼성생명	81,600	16,320	0.5	11.1	4.4	-2.9	-6.5	-16.1	-16.7	-34.5	-8	-2	-2	3	12
한화생명	4,220	3,665	0.3	6.7	4.5	-3.8	-4.2	-20.2	-20.8	-38.9	-2	-0	-3	0	2
동양생명	4,770	770	0.3	8.7	3.7	-1.0	-13.0	-25.4	-36.0	-37.2	-0	0	-0	0	2
삼성화재	269,000	12,744	1.0	13.4	7.5	-3.1	-4.1	-5.3	0.9	0.7	-2	-7	1	6	20
DB손해보험	70,400	4,984	0.8	7.2	12.4	-4.9	3.4	-3.3	18.9	-1.1	-10	10	-6	5	30
현대해상	41,050	3,670	0.9	7.0	13.3	-4.3	0.1	-2.1	20.7	-12.7	-2	3	1	5	26
메리츠화재	21,850	2,484	1.1	8.0	14.5	-0.2	0.2	12.9	13.2	-7.0	3	-2	-0	1	10
한화손해보험	5,910	690	0.5	5.0	11.0	8.8	-0.2	-15.8	-9.9	-27.4	0	1	1	0	1
삼성증권	31,500	2,813	0.6	8.6	6.8	-4.5	6.4	-3.5	-9.6	-13.9	5	-2	-0	6	25
미래에셋대우	6,530	4,299	0.5	9.4	5.8	-4.3	-5.8	-22.9	-23.3	-28.9	-9	0	-6	3	34
NH투자증권	13,050	3,672	0.7	10.2	7.4	-5.8	-4.7	-8.7	-11.2	-6.1	-11	4	-6	2	13
한국금융지주	59,500	3,316	0.7	6.2	12.1	-2.1	-11.5	-21.8	-28.6	-13.8	-4	-0	-1	1	9
키움증권	78,200	1,728	0.9	8.4	10.7	2.5	-2.9	-19.8	-24.8	-10.7	3	0	1	1	8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 2. 전주 동향

보험	<p><b>보험업종 약세 시현:</b> 전주 보험업종은 약세를 시현하였음. 가장 큰 요인은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이었으며 장기채권금리가 빠르게 하락한 부분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미국의 경제지표의 혼조세와 2019년 점도표 상 기준금리 인상 횡수 축소 등 금리에 대한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는 점이 중기적 측면에서도 부담요인이라고 판단됨. 1월 중순에 자동차보험료 1차 인상분이 반영될 예정임. 다만 부진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손해보험업종의 투자심리 악화를 이끌고 있다고 판단됨</p> <p>▶<b>종신보험료 인하:</b>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의 보험료 인하가 2019년 4월에 진행될 예정임. 새로운 경험생명표에서 평균수명 증가를 반영하면서 사망담보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기 때문임. 그 동안은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만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 다만 4월부터 보험료가 인하되면서 연초 종신보험의 수요가 이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정에 있어 4월 적용 보험료를 향후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판매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판매 공백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p>
증권	<p><b>증권업종 약세 시현:</b> 전주 증권업종은 국내외 주식시장 하락의 영향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시현하였음. 증권업종 역시 배당락의 영향 속에 있었지만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 확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됨. 부진한 영업환경을 감안할 때 2019년 상반기 이익 또한 불확실성 속에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임</p> <p>▶<b>ELS 발행 및 조기상환 부진 지속:</b> 12월 ELS 조기상환은 2.3조원으로 11월 1.9조원대비 증가하였지만 10월 4조원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상황임. 주요국 주가지수의 하락의 영향으로 판단됨. 12월 ELS 발행은 11조원으로 11월 4.9조원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하지만 이는 12월에 퇴직연금 관련 ELB 발행이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발행량 규모 증가가 아닌 2017년 12월 ELS 발행량이 14.2조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ELS 발행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됨</p>

##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Quarterly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누계	MoM	4Q17	1Q18	2Q18	3Q18	4Q18 누계	QoQ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8.1	-10.6	9.0	8.8	10.8	9.6	8.4	8.5	0.6	11.8	13.8	13.9	9.4	8.8	-6.1
KOSPI	4.7	-12.4	5.5	5.2	6.1	6.1	5.3	5.2	-0.8	6.0	7.0	8.1	5.6	5.6	-0.2
KOSDAQ	3.4	-8.1	3.4	3.5	4.7	3.5	3.1	3.2	2.9	5.8	6.8	5.8	3.8	3.3	-14.6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9.4	-4.3	10.8	11.3	11.8	9.3	9.6	9.4	-1.6	9.8	11.3	11.8	11.8	9.4	-19.9
KOSPI	4.8	8.0	5.5	5.7	5.9	4.8	4.9	4.8	-0.9	4.5	5.4	6.0	5.9	4.8	-18.1
KOSDAQ	4.6	-14.6	5.3	5.6	5.9	4.5	4.7	4.6	-2.4	5.4	5.9	5.8	5.9	4.6	-21.6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75	-6.9	1.83	1.73	1.85	1.80	1.81	1.75	-5.5	1.85	1.89	1.85	1.85	1.75	-9.4
3년	1.82	-29.2	2.13	1.91	2.00	1.94	1.90	1.82	-7.2	2.13	2.22	2.12	2.00	1.82	-17.9
5년	1.89	-44.3	2.36	2.10	2.18	2.08	1.98	1.89	-8.3	2.35	2.43	2.35	2.18	1.89	-28.3
10년	1.96	-53.6	2.57	2.31	2.36	2.25	2.11	1.96	-15.4	2.47	2.62	2.56	2.36	1.96	-39.9
약정 MS	%	17년대비, %p						%	%p					%	%p
삼성증권	5.1	-0.8	6.1	6.0	6.0	5.6	5.6	5.3	-0.3	6.0	6.2	6.2	6.0	5.6	-0.5
미래에셋대우	11.7	-0.9	12.4	12.2	12.3	12.0	12.0	11.9	-0.0	13.2	13.3	12.8	12.3	12.0	-0.4
NH투자증권	6.5	0.5	6.5	6.9	6.5	7.3	6.3	6.6	0.4	6.4	6.3	6.4	6.6	6.8	0.1
한국금융지주	5.2	-0.6	5.3	5.4	5.6	5.4	5.4	5.3	-0.2	5.8	5.7	5.3	5.4	5.4	-0.1
키움증권	15.8	-0.7	16.9	17.4	17.4	15.9	16.5	16.5	0.1	17.4	17.5	18.2	17.2	16.3	-1.0

자료: KOFIA, Check, KRX

## 4. 금주 전망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주 보험업종은 시장대비 약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장기채권금리의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업종의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LAT 평가, EV 발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또한 K-ICS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금리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투자심리 악화가 당분간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됨</li> <li>또한 4분기 실적은 대규모 부동산 매각이익이 예상되는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컨센서스대비 부진한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손해보험 측면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시현할 것이고 인담보 신계약 판매가 호조세를 이어가며 사업비 부담 완화가 예상보다 적게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생명보험 측면에서는 위험 손해를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이익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공통요인으로는 4분기 주식시장 급락의 영향으로 투자부분에서 이익 기여도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li> <li>예상보다 부진한 4분기 실적은 2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정부와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을 협의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019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가이던스 역시 보수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연초 보험업종은 중립적인 접근을 권유함</li> </ul>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주 증권업종은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현실화 여부에 영향을 받게지만 시장 흐름 정도의 주가 흐름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li> <li>4분기 실적은 Trading 부분의 부진과 거래대금 및 시장 변수 악화의 영향으로 매우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증권업종 주가가 지난 3~4개월 동안 매우 부진한 흐름을 시현하였다는 점과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 증권업종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임</li> <li>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상대적으로 빠른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 다만 시장 반응이 회전을 급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개인들의 선호 업종이 현재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따라서 Brokerage 관련 회사보다는 Valuation 측면에서 매력적인 회사, 그리고 합인요인이 축소될 수 있는 회사로 집중하는 것을 권유함.</li> </ul>

2019년은 황금돼지띠(己亥年)입니다. 자본시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황금, 황금'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12월 31일	중국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12월)	50.0	49.9
1월 2일	중국	Caixin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12월)	50.2	50.1
1월 4일	미국	ISM 제조업고용지수 (12월)	58.4	0.0
1월 4일	미국	ISM 제조업구매자지수 (12월)	59.3	58.0
1월 4일	미국	신규 주택판매 (11월)	1K	1K
1월 4일	미국	실업률 (12월)	3.7%	3.7%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 <b>[마켓인사이트] 삼성화재, 인수어테크홀에 396억 투자 (한국경제)</b>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삼성벤처투자가 운용하는 ‘SVIC 44호 금융R&amp;D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가칭)에 396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음</p> <p>▶ <b>해외주식까지 이어진 ‘무료’ 수수료 경쟁…신규 고객 유치 (아시아투데이)</b> 지난해 국내 증권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기조가 해외주식 거래로 이어지고 있음</p> <p>▶ <b>요즘 런던 초고층, 한국이 새로운 ‘큰손’ (조선비즈)</b> 일간 더타임스는 “올 들어 9월까지 한국인이 런던 부동산에 투자한 총액은 19억5000만파운드(약 2조9000만원)이고, 연말까지 30억파운드(4조5000억원)를 돌파할 것”이라며 “한국이 런던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큰손(New Big spender)’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음</p> <p>▶ <b>현대해상 “비엠티은행 보험사 지분 25% 인수” (일요서울)</b> 현대해상은 지난 21일 베트남 손해보험사 ‘비엠티은행 보험회사(VietinBank Insurance Joint Stock Corporation)’의 지분 2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음</p> <p>▶ <b>MG손보, 연내 자본확충 불발…또다시 강제매각 위기 (아주경제)</b> MG손보는 내년 초까지 자본확충을 하지 못할 경우 전신이었던 그린손보에 이어 다시 한 번 강제매각될 것으로 보임</p> <p>▶ <b>새해 ‘요양병원비 보장’ 암보험 일제히 나온다 (한국경제)</b>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새로운 암보험 상품 인가를 받고 내년 1월1일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임. 요양병원 입원비 특약에 가입하면 암의 직접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 한 하루 1만~2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됨</p> <p>▶ <b>NH·한투,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사옥 2150억에 인수…국내 첫 복유립 투자 (머니투데이)</b>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전세계적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덴마크 본사를 인수함.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복유립 오피스 투자는 이번이 첫 사례임</p> <p>▶ <b>‘유로·파운드’ 약세에 유럽부동산펀드 붐물 (아주경제)</b> ‘유로·파운드’ 약세 덕분에 유럽부동산펀드가 붐물처럼 쏟아지고 있음</p> <p>▶ <b>보험업계 공통된 GA…보험사 판매 순위까지 좌지우지 (매일경제)</b> 보험사 구분 없이 다양한 회사의 보험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업계를 좌우하는 공룡으로 커지고 있음</p> <p>▶ <b>[단독] 토스, 내년 1월부터 ‘미니보험’ 시장 진출 (대한금융신문)</b>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 판매에 나섰다</p> <p>▶ <b>현대인베스트먼트운용, 美Related·HPS 부동산대출펀드에 3000억원 투자 (아시아경제)</b>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미국 굴지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Related와 크레딧 전문 운용사인 HPS Investment가 공동 운용하는 부동산 대출펀드인 Real Estate Credit Solutions Fund II(RECS II 펀드)에 대출하는 투자를 했다고 26일 밝혔음</p> <p>▶ <b>불황으로 보험 해약 급증… 해약환급금 규모 역대 최대될 듯 (한국일보)</b> 불경기로 보험을 해약하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올해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음</p> <p>▶ <b>미래에셋대우, 아마존 물류센터에 7800만 달러 투자 (파이낸셜뉴스)</b> 미래에셋대우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의 신설 물류센터 인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음. 투자금액은 7800만 달러(약 900억원)에 달함</p> <p>▶ <b>[단독] 메리츠금융지주, 자회사GA 매각…MTAC와 단독협상 착수 (EBN)</b> 메리츠금융지주가 자회사 독립법인대리점 메리츠금융서비스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 위해 MTAC와 단독 협상에 들어갔음. 이르면 이달 중 본계약을 체결할 것임</p> <p>▶ <b>기업 자금조달시장도 ‘냉랭’…주식·회사채 발행 31% ↓ (뉴데일리)</b>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중 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12조5481억원으로 지난달보다 5조6382억원 감소했음</p> <p>▶ <b>[단독] 오르기만 하던 종신보험료, 최대 20% 싸진다 (뉴스핌)</b>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을 반영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참조위험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4월에는 종신보험 보험료가 최대 20%가량 인하됨</p> <p>▶ <b>증권IB, 황금돼지해 ‘부동산 투자’ 늘린다 (아시아경제)</b> 채권자본시장(DCM), 주식자본시장(ECM), 인수합병(M&amp;A) 등 정통 IB 부문의 먹거리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는 계산에서 증권사 투자은행(IB) 업계는 2019년 황금돼지해에 핵심 수익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꼽았음</p> <p>▶ <b>4개 대형 손해보험사, 국내 시장 점유율 70% 육박 (디지털타임스)</b>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음</p>
----	--

7. Global Peers

		현재가	Mkt. Cap.	PBR	PER	ROE	ROA	Performance (%)				
		(Local)	(USD bn)	(FY19F)	(FY19F)	(FY19F)	(FY19F)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041		0.9	8.7	9.8	8.7	-0.9	-2.7	-12.9	-12.3	-17.3
	보험	16,303		0.6	8.1	6.5	0.6	-2.5	-2.4	-10.7	-8.4	-22.9
	삼성생명	81,600	14.6	0.5	10.2	4.5	0.5	-2.5	-7.3	-16.1	-17.1	-34.5
	한화생명	4,220	3.3	0.4	6.6	5.5	0.4	-4.1	-6.0	-20.2	-20.4	-38.9
	동양생명	4,770	0.7	0.3	4.9	6.8	0.6	-1.5	-12.8	-25.4	-35.5	-37.2
	삼성화재	269,000	11.4	0.9	10.9	9.0	1.4	-3.4	-3.1	-5.3	1.9	0.7
	DB손해보험	70,400	4.5	0.9	7.2	13.6	1.6	-3.4	2.3	-3.3	19.3	-1.1
	현대해상	41,050	3.3	0.9	7.2	14.0	1.1	-4.4	0.0	-2.1	21.8	-12.7
	메리츠화재	21,850	2.2	1.1	8.1	14.6	1.5	0.2	0.9	12.9	13.8	-7.0
	한화손해보험	5,910	0.6	0.5	4.4	11.1	0.9	8.4	0.3	-15.8	-9.5	-27.4
	증권	1,676		0.6	8.3	8.0	0.8	-3.1	-5.2	-12.5	-13.3	-15.6
	삼성증권	31,500	2.5	0.6	9.6	6.1	0.9	-4.0	2.4	-3.5	-9.4	-13.9
	미래에셋대우	6,530	3.9	0.5	8.9	5.8	0.5	-4.1	-8.0	-22.9	-23.4	-27.3
	NH투자증권	13,050	3.3	0.7	9.0	8.1	0.8	-4.0	-5.4	-8.7	-12.7	-6.1
	한국금융지주	59,500	3.0	0.7	5.9	12.0	1.0	-2.9	-13.4	-21.8	-29.3	-13.8
	키움증권	78,200	1.5	0.8	7.2	11.5	1.6	3.3	-7.5	-19.8	-27.9	-10.7
일본	Nikkei225	20,015		1.5	14.5	10.4	2.0	-1.9	-10.5	-17.0	-10.3	-12.1
	보험	915		0.7	9.8	6.9	0.8	-2.9	-11.0	-18.1	-8.6	-13.6
	Dai-ichi Life Holdings	3,511	22.5	2.0	39.3	5.3	3.4	-5.2	-15.0	-28.7	-17.1	19.5
	Japan Post Insurance	2,547	13.8	0.7	15.3	5.1	0.2	-0.1	-11.9	-5.4	11.8	-3.8
	Tokio Marine Holdings	5,236	34.1	1.0	11.5	8.3	1.6	-2.2	-5.7	-7.1	2.1	3.1
	증권	315		0.7	10.7	4.4	0.3	-1.3	-15.1	-24.0	-20.5	-27.6
	Nomura Holdings	421	13.3	0.5	12.0	3.7	0.2	1.0	-19.0	-22.5	-21.8	-36.7
	Daiwa Securities	557	8.6	0.7	9.7	7.3	0.5	-4.5	-12.0	-19.5	-13.5	-21.3
	SBI Holdings	2,159	4.6	1.1	8.2	13.3	1.4	-3.6	-15.9	-38.8	-24.4	-8.4
중국/홍콩	Hang Seng	25,504		1.2	10.7	12.8	1.1	-1.4	-3.8	-8.2	-11.9	-14.8
	상해A주 지수	2,611		1.1	10.3	12.2	1.1	-0.9	-3.6	-11.6	-12.4	-24.6
	보험	124		1.1	10.9	10.3	1.7	-1.5	-9.4	-14.0	-16.0	-31.0
	China Life	16	77.3	1.1	10.5	11.5	1.3	-1.6	-2.6	-8.1	-19.3	-33.4
	Ping An Insurance	68	153.5	1.7	9.0	20.6	1.6	-6.1	-9.7	-13.9	-5.2	-15.6
	AIA	64	98.9	2.1	15.5	14.0	2.4	-0.5	-0.4	-8.2	-6.5	-3.8
	증권	87		1.1	22.3	5.5	1.4	-3.7	-5.7	-0.1	-9.3	-31.3
	CITIC Securities	13	26.8	0.9	11.7	7.6	1.8	-5.7	-8.8	-4.2	-14.9	-17.2
	Haitong Securities	7	13.6	0.6	9.4	6.1	1.3	-7.8	-10.6	3.4	-7.2	-35.1
	Huatai Securities	12	18.1	0.8	10.8	7.3	1.9	-4.8	-5.4	10.2	-1.0	-20.6
미국	S&P500	2,486		2.9	15.3	19.0	3.4	0.7	-9.9	-14.7	-8.6	-7.0
	보험	345		1.2	11.3	10.4	#N/A	1.2	-9.0	-12.1	-6.5	-14.2
	AIG	39	34.2	0.5	8.0	7.2	0.9	1.2	-11.1	-27.5	-27.2	-35.2
	Metlife	41	40.1	0.8	7.3	11.6	0.7	3.2	-8.5	-13.1	-6.8	-19.7
	Prudential Financial	81	33.4	0.7	6.3	12.3	0.6	0.5	-13.1	-20.3	-13.6	-29.7
	증권	167		1.8	12.2	13.7	1.3	1.7	-10.3	-14.4	-16.6	-17.6
	JP Morgan	97	322.0	1.3	9.6	13.9	1.3	0.4	-12.0	-14.2	-7.1	-9.5
	Goldman Sachs	163	63.0	0.7	6.5	12.3	1.0	-3.2	-16.3	-27.3	-26.1	-36.0
	Charles Schwab	41	55.4	2.5	14.3	19.8	1.5	3.6	-7.0	-16.5	-19.6	-20.1
유럽	MSCI Europe	114		1.5	12.8	10.6	1.0	-0.1	-6.0	-12.0	-11.2	-13.5
	보험	68		1.0	10.0	12.4	0.5	-0.0	-6.6	-10.7	-5.8	-10.8
	Allianz	175	85.1	1.1	9.1	12.3	0.9	0.2	-7.4	-8.8	-1.1	-8.5
	AXA	19	52.1	0.6	6.8	9.3	0.7	-0.9	-12.8	-18.9	-10.6	-24.1
	Prudential plc	1,390	45.7	1.9	8.5	21.6	0.7	-1.3	-10.3	-21.0	-19.9	-27.1
	Munich Re	191	32.6	1.0	10.3	9.7	1.2	1.1	-0.8	-0.1	5.2	5.4
	증권	55		0.9	11.8	6.6	0.3	-1.5	-10.8	-23.4	-22.5	-30.3
	UBS	12	47.8	0.8	8.2	9.9	0.6	2.7	-9.2	-21.2	-19.2	-29.8
	Credit Suisse	11	28.0	0.6	7.1	8.6	0.5	-1.4	-9.4	-26.8	-27.8	-37.0
	Deutsche Bank	7	16.5	0.2	9.1	2.2	0.1	-8.9	-16.1	-29.1	-24.5	-56.1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751	1,740	1,804	1,845	1,846	1,853	1.1	-5.3	-9.4	-9.5	-10.2
		3 Year	1.823	1,843	1,915	2,002	2,115	2,134	-2.0	-9.2	-17.9	-29.2	-31.1
		5 Year	1.892	1,902	2,002	2,175	2,351	2,347	-1.0	-11.0	-28.3	-45.9	-45.5
		10 Year	1.956	1,975	2,152	2,355	2,560	2,467	-1.9	-19.6	-39.9	-60.4	-51.1
일본	국고채	1 Year	-0.146	-0.156	-0.129	-0.121	-0.126	-0.145	1.0	-1.7	-2.5	-2.0	-0.1
		10 Year	0.003	0.047	0.100	0.130	0.036	0.048	-4.4	-9.7	-12.7	-3.3	-4.5
중국	국고채	1 Year	2.690	2,676	2,502	2,969	3,254	3,834	1.4	18.8	-27.9	-56.4	-114.4
		10 Year	3.310	3,336	3,411	3,636	3,576	3,902	-2.6	-10.1	-32.6	-26.6	-59.2
미국	국고채	1 Year	2.578	2,618	2,670	2,563	2,307	1,732	-4.0	-9.3	1.5	27.1	84.6
		10 Year	2.718	2,790	3,059	3,061	2,837	2,405	-7.2	-34.1	-34.3	-11.8	31.3
유럽	국고채	1 Year	-0.601	-0.632	-0.555	-0.520	-0.567	-0.611	3.1	-4.6	-8.1	-3.4	1.0
		10 Year	0.242	0.250	0.349	0.470	0.319	0.427	-0.8	-10.7	-22.8	-7.7	-18.5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불법발행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